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Contents

- 통계로 본 이슈
 - 지난해 러시아 철도-항만 복합운송 수출 물동량 3.6% 증가
-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 북극권 항로 개척과 자원개발을 위한 러-일 경제협력 활발
 - 러시아, 완성차 운송시장 주요 거점으로 주목
 - 러시아 노바텍, 올해 아시아 LNG시장 진출 박차
 - 일본기업 SOJITZ, 하바로프스크 국제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 지난해 러시아 항만·철도 처리 물동량 증가세 유지
- 주요 통계
 - 2018년 1~10월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규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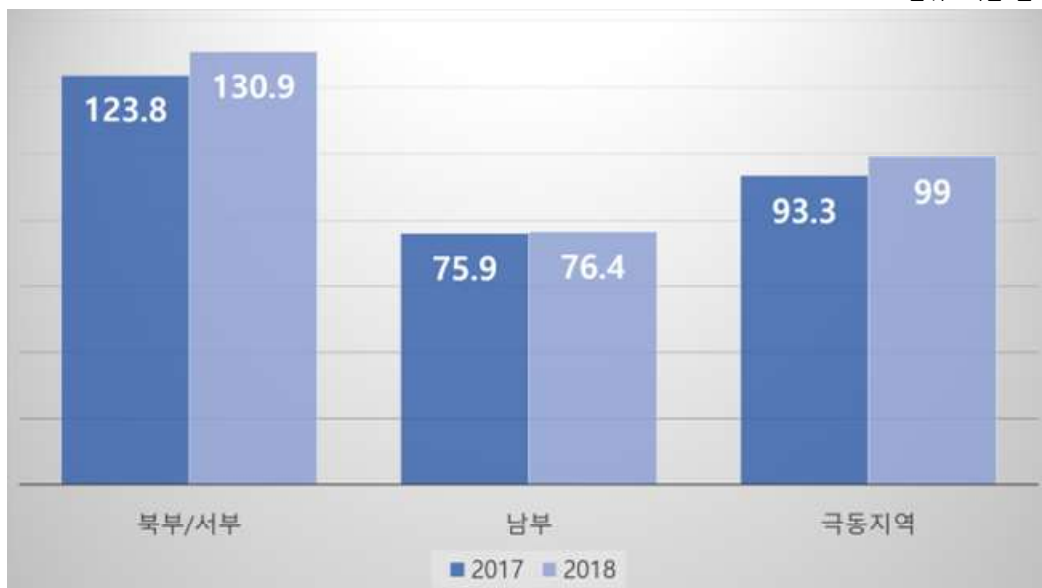


통계로 본 이슈

지난해 러시아 철도-항만 복합운송 수출 물동량 3.6% 증가

철도-항만 복합운송을 통한 수출 물동량(2017-2018)

단위: 백만 톤



자료: <http://seanews.ru/2019/01/14/ru-zhd-jeksport-cherez-porty-3/>(검색일: 2019년 1월 16일)

- 2018년 러시아 철도-항만을 통해 수출된 물동량은 총 3억 650만 톤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음
 - 2018년 12월 기준 북부 및 서부지역 항만을 통한 수출화물량이 1억 3,090만 톤으로 가장 많은 동시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음
- 총 수출화물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46.6%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밖에 석유 26.1%, 철강석 8.9%, 설비/기계 6.7%, 곡물 3.7%, 기타 8%로 파악됨



- 러시아철도공사 발표에 따르면 전년대비 곡물수출량은 25.5% 증가했으며, 그 외에도 종이류 11.7%, 목재 15.5%, 석탄 3.6%, 철강석 8.3%, 설비/기계 2.1% 증가했음

철도-항만 복합운송을 통한 수출화물별 증가율 (2017-2018)

단위: %



자료: <http://seanews.ru/2019/01/14/ru-zhd-jeksport-cherez-porty-3/>(검색일: 2019년 1월 16일)

- 러시아 남부지역은 세계적 밀 주산지로서, 러시아 내에서 농업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흑해연안에 인접해 있음에 따라 남부지역 내 철도-항만 복합운송을 통한 수출화물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http://seanews.ru/2019/01/14/ru-zhd-jeksport-cherez-porty-3/>
(검색일: 2019년 1월 16일)

김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북극권 항로 개척과 자원개발을 위한 러-일 경제협력 활발

- 북극권 유럽-아시아 간 항로 개척과 천연가스 등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극동러시아 지역에서의 러-일 경제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2018년 9월 러-일 정상은 회담을 통해 극동러시아 야말 지역의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10여건의 협력 문서를 교환함
 - 그리고 2018년 12월 18일 양국 정부는 무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민간기업과 함께 경제 협력을 논의함
 - 특히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공항 터미널 운영 사업에 일본 기업인 Japan Airport Terminal 사가 참가하기로 결정함
- 북극권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러시아는 LNG 기지 건설 등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음
 - 북극해의 북동항로는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되어 있고, 야말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
 - 러시아 가스회사인 Novatek은 북극권의 LNG기지 건설계획을 책정하고,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러-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LNG 중계 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일본의 MOL, 마루베니(丸紅)와 러시아의 Novatek 등은 공동으로 36만³ 규모의 FSU(부유식 LNG 저장설비) 2척을 설치해 중계 기지로 활용할 계획임
 - 이를 통해 북극해에서 쇄빙선으로 실어온 LNG를 중계 기지에 임시 저장한 후 기존 수송선으로 옮겨 아시아 각지로 운송할 계획임



※ 수송규모는 일본 연간 수요의 25%에 해당하는 연간 2천만톤 수준임

- 동 계획 실행 시 일본까지의 수송일수는 17일 정도가 소요되어 유럽에서 수에즈운하 경유 루트에 비해 수송시간이 절반 이상으로 단축되고, 수송비용도 비약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평가됨

■ 참고자료 :<https://www.nikkei.com/>(검색일: 2019년 1월 14일)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051-797-4677, chnayoung@kmi.re.kr



러시아, 완성차 운송시장 주요 거점으로 주목

- 러시아 관세청(Russia Federal Customs Service)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의 완성차 수입량은 전년대비 약 16% 증가한 총 212,400대를 기록함
 - 해당 기간 내 완성차 수입 금액은 약 52억 달러에 이르며, 수입국 가운데 일본(3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독일(16%), 미국(9%) 순으로 나타남
 - 러시아의 완성차 수입은 2014년 70만대를 넘어선 이후 2016년(약 27만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중반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여 2017년 기준 총 267,700대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약 66억에 이름
- 완성차 수입량은 향후 관세 혜택 등의 이유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자동차 회사 Sollers의 Vadim Shvetsov 사장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톡항을 통한 완성차 수입량은 연간 12만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음
 - 특히 블라디보스톡항에서 하역 후 철도를 통해 완성차를 운송할 경우 관세 혜택의 장점이 있어 비용절감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음
- 러시아는 완성차 수입량 증가에 따라 완성차 운송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 자동차 제조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완성차 수입의 주요 운송루트는 블라디보스톡항을 거쳐 철도를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내 주요 항만 및 유럽까지이며, 해당 루트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경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 내 제조 공장에서 해상운송을 통해 유럽으로 운송하는 경로 대비 약 50일 정도 단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러시아 철도청(Russian Railways)과의 협약을 통해 10년 동안 일정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어 물류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https://automotivelogistics.media/news/russia-continues-to-increase-finished-vehicle-imports> 2019.1.4.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러시아 노바텍, 올해 아시아 LNG시장 진출 박차

- 현재 러시아는 자국 생산 LNG의 1/3 이상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시장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수출 비중을 확대하고자 극동러 지역에 집중하고 있음
 - 대표적 아시아 시장인 중국은 세계 최대 LNG 수입국으로, 2018년 한해 9,029만 톤의 LNG를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수치임
 - 2019년 12월부터 시베리아에서 중국으로 LNG 수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¹⁾은 파이프라인 완공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또다른 LNG 생산기업인 노바텍(Novatek)²⁾은 아시아 시장으로 LNG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옴
- 노바텍은 최근 일본 사이부가스(Saibu Gas)와 계약을 통해 아시아 지역 LNG 시장 진출에 대한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
 - 일본 기타규슈 지역에 위치한 사이부가스의 히비키(Hibiki) LNG 터미널을 이용하게 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바텍은 러시아 정부의 지원(99.3억 달러)을 받아 극동러 지역 캄차카반도에 해상 LNG 환적기지(marine LNG transshipment complex)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이 LNG 기지는 LNG 공급허브 기능을 통해 물류 최적화를 실현함으로써 북극 지역의 LNG 운송, 공급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아시아 시장과 인접한 이점으로 인해 운송비 절감뿐만 아니라 단발성 현물 수요(Spot demand)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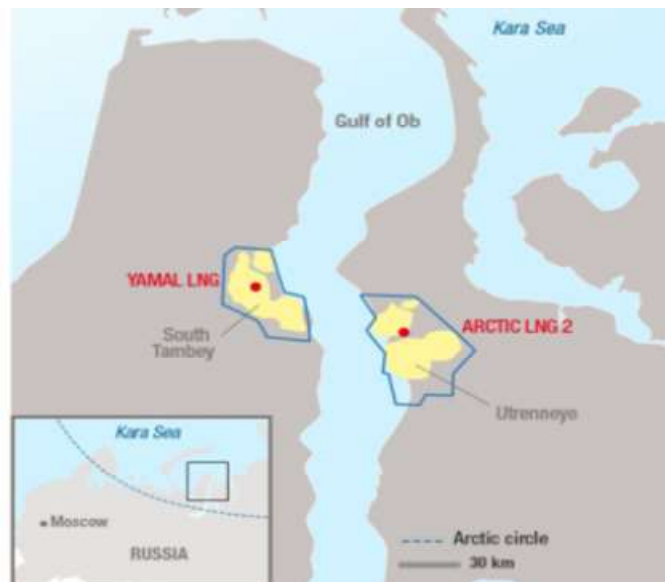
1) 러시아 국영 LNG 기업으로, 전 세계 LNG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2) 러시아 최대 민영 가스 생산 기업으로 현재 야말 LNG 기지를 운영 중임



- 노바텍은 현재 야말(Yamal) LNG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적으로 'Arctic LNG 2' 기지 구축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nal Investment Decision: FID)을 내릴 전망이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투자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음
 - 현재 270억 달러 규모의 'Arctic LNG 2' 프로젝트 투자를 확정하지 못했으나 전문가들은 올해 FID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야말 LNG 기지의 프로젝트 파트너인 프랑스 기업 토탈(Total)사는 작년 노바텍과 파트너십을 확대했으며, 'Arctic LNG 2'의 지분 10~15%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또한 사우디아람코(Saudi Aramco)³⁾를 포함한 여러 잠재적 파트너들이 'Arctic LNG 2' 지분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음

노바텍의 LNG 생산기지 위치



자료: <https://www.total.com>(검색일: 2019년 1월 14일)

■ 참고자료: <https://oilprice.com/Energy/Energy-General/Russias-Looks-To-Build-LNG-Island-To-Supply-Booming-Asian-Market.html>(검색일: 2019년 1월 15일)

김보경 연구원

3)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기업으로, 세계 최대 석유기업 중 하나임



051-797-4674, kimb@kmi.re.kr

일본기업 SOJITZ, 하바로프스크 국제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하바로프스크 국제공항 전경



자료: www.yandex.ru(검색일: 2019년 1월 14일)

- 일본기업 소지츠(SOJITZ)는 최근 극동러시아 하바로프스크 국제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 선언함
 - SOJITZ의 프로젝트 참여는 작년 12월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하바로프스크 국제공항 현대화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일본 프로젝트 컨소시엄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결정됐다는 업계 후문임
- 합의서 서명에는 막심 오레시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 산업성 대신, 후지모토 마사요시 SOJITZ사장, 하바로프스크 국제공항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음
- 하바로프스크 국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서 서명을 통해 러시아·일본 양 측은 하바로프스크 국제공항의 운영을 맡게 됨



- 또한 오는 2020-2023 사이에 건설 될 새로운 터미널 공사 및 공동운영관리를 진행하게 됨
- 하바로프스크 국제공항은 하바로프스크 선도개발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49억 루블 규모가 투자돼 신공항 터미널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음
 - 현재 전체 공정의 절반 정도가 완료됐으며 올해 3분기에 공사과정을 점검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하바로프스크공항 현대화 프로젝트는 늘어나는 여객수요 및 효율적인 극동러시아 효율적인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키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됐음
 - 하지만 오랫동안 프로젝트 투자자를 찾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어 오던 중 지난해 일본 기업의 참여로 2017년 들어서야 공사가 시작됨
- 현재 하바로프스크 국제공항 연간 이용객은 90만명 수준으로 앞으로 2026년까지 연간 450만명 목표로 약 3억불(약 34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현대화 사업을 결정한 바 있음
 - 우선 1단계로 신청사 건설 및 터미널 활주로 개축, 화물터미널 현대화, 시설장비 개보수를 마칠 예정임
 - 2단계 사업으로 물류센터, 호텔, 비즈니스 센터 등 상업지구단지 조성사업이 일명 'AIR CITY'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속되며 약 6,800만불 투자규모로 공항 배후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임

■ 참고자료 : <https://tass.ru/ekonomika/5925334>(검색일: 2019년 1월 11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지난해 러시아 항만·철도 처리 물동량 증가세 유지

- 2018년 러시아 전체 항만 처리 물동량은 약 8억 1,646만톤으로 전년대비 약 3.8% 증가함
 - 이 중 건화물은 약 3억 8,734만 톤(+3.8%), 액체화물은 약 4억 2,912만톤(+3.9%)임
 - 러시아 항만 중 북극해 항만 처리 물동량은 약 9,273만톤으로 전년대비 약 26.4%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다음으로 카스피해항만 처리 물동량이 두 번째로 높은 전년대비 약 21.6%의 증가율을 기록함
 - 2018년 극동해역 항만 처리 물동량은 약 2억 46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4.5% 증가함

2018년 러시아 해역별 항만 처리 물동량

단위: 백만톤

구분	전체 물동량	건화물	액체화물
북극해역	92.73(26.4%)	30.45(4.3%)	62.28(41%)
발틱해역	246.32(-0.5%)	109.78(4.5%)	136.54(-4.1%)
아조프-흑해	272.16(0.9%)	119.04(0.4%)	153.12(1.3%)
카스피해역	4.8(21.6%)	2.64(-6.9%)	2.16(1.9%)
극동해역	200.46(4.5%)	125.44(6.7%)	75.03(1%)

주: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http://portnews.ru/news/270553/>(검색일: 2019년 1월 12일)

- 2018년 러시아 철도 화물 처리 물동량은 약 12억 8,960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2.2% 증가함
 - 2018년 러시아 철도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약 450만TEU로 전년대비 약 14.3% 증가함



- 러시아 국내에서 운송된 컨테이너는 약 190만TEU(+5.7%)이며 환적 컨테이너는 약 55만 7,200TEU(+33.5%)임
- 이외 수출입된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각각 약 110만TEU(+16.9%)와 약 85만 9,800 TEU(+21.5)임

2018년 러시아 철도 화물 처리 물동량

단위: 백만톤

구분	처리 물동량	구분	처리 물동량
석탄	374.9(4.6%)	시멘트	25.1(-6.5%)
코크스	11.3(0.8%)	목재	45.7(5.6%)
석유 및 석유제품	236.4(0.4%)	곡물	27.1(22.6%)
철광석 및 망간	116.7(5.7%)	건설자재	123.8(-6.8%)
철금속	78.1(7%)	유황 원자재 및 광석	19.7(-2.8%)
스크랩	16(1.4%)	화학물질 등	26.4(1%)
화학 및 광물질 비료	59.3(3.7%)	산업원료 및 주형재료	35.4(-3.2%)

주: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http://morvesti.ru/detail.php?ID=76461>(검색일: 2018년 1월 12일)

■ 참고자료 : <http://portnews.ru/news/270553/>, <http://morvesti.ru/detail.php?ID=76461>,
<http://portnews.ru/news/270394/>(검색일: 2019년 1월 12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주요 통계

2018년 1~10월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규모

(단위: 천 달러)

상품명	2018.01.01. ~ 2018.10.31	
	수출	수입
합계	22,689,461.5	5,100,395.7
아제르바이잔	1,301.7	163.6
아르메니아	8,873.0	572.3
벨로루시	27,366.3	34,000.7
카자흐스탄	134,917.5	35,338.2
키르기스스탄	237.8	94.6
몰도바	45.3	44.1
타지키스탄	333.6	9.4
투르크메니스탄	323.2	-
우즈베키스탄	1,224.6	1,532.8
우크라이나	8,855.1	5,021.4
CIS 합계	183,478.0	76,777.1
압하스	4.1	0.8
오스트레일리아	5,799.2	10,160.2
오스트리아	32.3	18,869.3
알바니아	2.2	2.3
알제리아	12.5	-
앙골라	60.6	-
아르헨티나	110.0	32,901.7
아프가니스탄	-	1.3
바하마	-	4.0
방글라데시	8,930.7	3,278.9
바베이도스	-	0.2
바레인	30.6	-



벨기에	1,958,862.2	22,736.3
버뮤다	-	0.5
불가리아	500.5	159.5
볼리비아	19.1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6.8
보츠와나	12,994.4	-
브라질	1,388.4	40,289.8
브루나이 다루살람	659.2	-
헝가리	11.9	10,260.7
베네수엘라	0.2	-
버진 제도	102.5	-
베트남	70,512.7	32,331.9
가봉	853.5	-
감비아	-	0.0
가나	9.9	0.2
과테말라	754.9	51.1
독일	31,639.2	93,076.2
온두라스	-	40.9
홍콩	116,734.1	4,620.0
그리스	-	260.6
조지아	354.8	157.1
덴마크	13,138.1	14,887.7
도미니카 공화국	-	29.4
이집트	255,017.7	3,883.5
짐바브웨	-	17.3
이스라엘	422,688.5	708.7
인도	622,064.1	34,544.1
인도네시아	29,179.3	20,324.2
요르단	4.5	1.4
이라크	38.3	-
이란	-	12.7
아일랜드	-	406.2
아이슬란드	-	5,958.3
스페인	229.1	21,890.0
이탈리아	3,410.9	43,516.0
캄보디아	2,670.0	280.7
카메룬	7.9	0.4



캐나다	13,256.4	23,149.0
카타르	427.2	-
케냐	13,366.2	18.0
사이프러스	1,001.7	-
중국	4,938,016.9	2,701,917.7
콜롬비아	2,322.9	2,842.2
콩고	49.2	-
북한	15,141.6	15.2
한국	7,409,949.9	467,333.9
코스타리카	-	44.1
쿠바	-	15.5
쿠웨이트	53.2	-
쿠라사오	-	7.1
라오스	-	1.4
라트비아	160.7	1,235.5
리비아	2.5	0.8
리투아니아	22.3	722.9
리히텐슈타인	-	0.3
룩셈부르크	-	1,336.9
모리셔스	-	14.0
말레이시아	22,310.8	15,031.4
몰타	-	14.3
모로코	-	75.6
멕시코	2,186.1	12,240.2
미크로네시아	8.6	-
모나코	-	1.6
몽골	26,905.4	383.3
미얀마	5,858.0	1,114.8
네팔	-	15.0
나이지리아	4,510.6	-
네덜란드	8,015.8	30,422.2
니카라과	-	20.4
뉴질랜드	254.0	10,966.8
노르웨이	2,014.8	82,090.0
아랍에미리트	374,121.6	5,283.0
오만	196.9	-
파키스탄	1,321.4	7,980.8



파나마	3,937.0	19.5
파라과이	-	28,196.4
페루	24,002.6	799.0
폴란드	291.8	32,318.2
포르투갈	-	1,405.8
푸에르토리코	-	10.6
마케도니아	-	4.9
루마니아	168.5	15,499.7
산마리노		2.9
사우디아라비아	330.5	31.9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	1.1
스와질란드	-	252.6
세르비아	2.2	4,693.9
싱가포르	24,176.6	46,622.5
시리아	2,762.7	-
슬로바키아	-	1,491.9
슬로베니아	12.9	325.8
영국	8,539.2	51,314.8
미국	63,623.6	353,855.8
소말리아	78.0	6.6
유럽연합 국가	-	1,043.9
시에라리온	-	0.4
대만	670,845.8	32,544.4
태국	61,259.9	36,249.8
트리니다드 토바고	0.3	11.6
튀니지	-	51.7
터키	6.7	34,952.0
우간다	187.9	-
우루과이	-	3,037.4
필리핀	177,809.8	2,285.6
핀란드	0.4	35,425.1
포클랜드 제도	700.0	-
프랑스	5,542.4	43,673.8
크로아티아	-	196.3
차드	23.9	-
몬테네그로	8.8	-
체코	1,242.5	2,471.9



칠레	15,696.9	35,323.5
스위스	11,939.2	3,609.9
스웨덴	406.0	13,711.4
스리랑카	139.9	2,591.7
에콰도르	835.7	29,108.4
엘살바도르	311.9	22.3
에스토니아	665.5	1,105.1
남아프리카 공화국	165.4	8,530.0
일본	5,025,517.9	418,373.1
기타	4,448.6	2,470.5
해외 합계	22,505,983.5	5,023,618.7